

“분별없는 증오 그만”... 지구촌 애도 물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나이트 클럽에서 최소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총기참사가 발생하자 12일(현지시간) 희생자들에게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고 있다. 미국 시애틀을 칼렌더스 공원에서 열린 촛불 추모에 나온 무슬림 참가자(왼쪽)와 LA에서 열린 '2016 게이 퍼레이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나이트 클럽에서 최소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총기참사가 발생하자 12일(현지시간) 희생자들에게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고 있다. 미국 시애틀을 칼렌더스 공원에서 열린 촛불 추모에 나온 무슬림 참가자(왼쪽)와 LA에서 열린 '2016 게이 퍼레이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美 플로리다 클럽 총기난사

교황·반기문 총장 규탄 성명

각국 정상들, 적극 연대 약속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애도 물결이 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일(현지시간)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게이 클럽 총기 테러에 대해 “분별없는 증오심의 표출”이라며 비난했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인의 어

리석음과 분별없는 증오심의 표출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우리 모두는 깊은 공포와 규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테러행위를 비난했다. 각국 정상들도 잇따라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애도와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올랜드 사건을 비난하며 “프랑스와 프랑스인들은 어려운 시기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크렘린 성명을 통해 “아만적인 범죄”라고 비판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어서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테러로 5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32명이 사망한 브뤼셀 연쇄 테러를 겪은 벨기에의 샤를 미셸 총리도 트위터에 “올랜드 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 너무 슬프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이 트위터 등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들에 애도를 표

하며 사건과 관련, 미국과 연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용의자인 오마르 마틴의 부모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그 무엇도 민간인 살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분명한 규탄의 뜻을 표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유명인사들의 글들도 잇따랐다. 동성애자인 영국 가수 엘튼 존도 트위터에 “올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pray-fororlando), 사람이 치유다(#loveis-the-cure)”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인기 TV 쇼 진행자인 엘런 드제너러스도 “흐느끼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수십 발 총성, 음악에 묻혀 피해 커졌다”

목격자가 전한 사건 현장

“이게 무슨 음악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순간 옆 사람이 쓰러졌고, 다시 보니 피투성이였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플로리다주 지역 언론에 전한 목격담이다. 올랜드 중심가 남동쪽에 있는 나이트클럽 ‘펠스’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지만, 최근 요일별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인 방문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이날 오전 2시께는 이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종료하려던 때였지만, 여전히 약 320명이 흥청거리고 있었고 사람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도 커진 상태였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음악으로 착각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크리스토퍼 헨슨은 CNN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격을 피하려고 정신없이 지그재그로 기어나가야 했다”며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총격이 있기 전 범인과 경찰 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5시경 경찰은 인질 구출을 위한 진압작전을 결정했다. 플로리다주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경찰특공대를 진입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적어도 9명의 경찰이 총격전에 참가했고, 경관 1명은 총격범의 총탄이 헬멧에 맞는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다. 이날 오전 6시경 경찰은 총격범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아프간계 용의자 마틴, 폭력적 성향 드러내

미국 플로리다주(州) 올랜드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29)이 범행 전 항상 살인을 언급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마틴과 함께 보안업체 G4에서 일했던 전(前) 직장 동료 대니얼 길로이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길로이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곧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틴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길로이는 미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의 PGA빌리지에서 마틴과 함께 G4S의 경호원으로 일했다. 그는 마틴의 품행에 대해 회사에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길로이는 마틴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비방을 일삼았으며 “그는 문제가 있었고, 끊임없이 분노에 차 있었다”고



美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오마르 마틴.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마틴의 전(前) 부인의 증언을 인용해 마틴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부인은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면서 “같이 살 때 나를 때렸다. 빨래가 다 되지 않았다 등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5 오나라의 대일보 육손

육손(陸遜, 183-245)은 오군 오현 출신으로 본명은 유익고 자는 백언이다. 대기만성형 인물로 대업을 이룬 오나라의 대일보다. 그는 대대로 강동의 호족 집안 출신으로 손권의 형 손책의 사위가 되었다. 손권은 자주 그를 불러 당대의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그는 “지금 영웅들이 여러 곳에서 패권을 쥐고 대치하고 있고 호시탐탐 옆으로 관망하고 있다. 안에서 일어난 환란을 평정하지 않고 먼 곳을 도모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대오를 확충하고 그 가운데서 정예를 뽑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의 역량은 형주를 장악하고 있는 관우와의 싸움에서 크게 빛을 발하였다. 관우는 변성에 주둔한 위의 조인을 무찌르고 북상해 조조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의 공격에 대비해 강릉에 주둔시킨 대군을 차출

관우를 꺾고 이릉대전 대승 이끌어

해야 했는데 오의 대도독 여몽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관우를 속이기 위해 여몽은 병을 핑계로 건업으로 돌아와 있었다. 손권이 여몽에게 누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하문하자 다음과 같이 육손을 추천했다. “육손은 사려 깊고 패기가 있어 중임을 맡길 만하다. 그는 아직 먼 곳까지 이름이 나이지 않고 관우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그를 쓰면 밖으로는 참된 의도를 숨기고 안으로는 유리한 형세를 살피도록 한 다음 관우를 무찌를 수 있다.” 그는 관우에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편지를 보내 방심케 만들었다. 관우는 지체 없이 강릉의 군대를 빼내 조인과의 싸움에 투입했다. 여몽은 강릉을 함락시켰고 관우는 변성에서 위의 서황에게 패해 맥성으로 철수하는 중 오의 마초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는 그 여세를 몰아 형주를 평정했다. 이 공으로 진사장군에 임명되고 누후로 봉해졌다. 여몽 사후 대도독이 되었다. 촉의 유비는 죽은 관우의 복수전을 일으켰으니 그 유명한 이릉대전이다. 이릉대전은 관도대전, 적벽대전과 함께 삼국시대의 3대 전쟁으로 평가된다. 221년 유비는 천하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해 관우의 복수와 형주

의 탈환을 도모하였다. 이릉대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촉군이 연전연승해 오나라를 궁지로 몰아넣는 단계다. 손권은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내 형주를 되돌려 주겠다고 제의하며 화친을 구한다. 유비는 이를 거절한다. 둘째 단계는 촉군과 오군이 이릉 일대에서 서로 대치하는 장면이다. 손권은 육손을 최고 사령관으로 발탁해 전권을 준다. 그는 각 관문과 요충지를 굳게 지키면서 먼 원정을 피로한 촉군이 지지를 기다린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로에 지쳐 방어가 허술해진 촉군 진영에 화공전을 퍼 승리를 거둔다. 유비는 백제 성으로 달아나 이릉대전은 오군의 대승으로 끝난다. 이릉대전은 그의 뛰어난 작전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손권은 “나라의 일은 과인이 주장할 것이나, 나라 밖의 일은 모두 장군이 맡으라”며 전권을 주었다. 그는 여러 장군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 화공으로 전세를 일거에 뒤집었다. 삼국지의 저자 나관중은 육손의 모습을 ‘치욕을 참아가며 중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인욕부중(忍辱負重)으로 표현하였다. 이릉대전의 결과 강남 지방에 대한 오나라의 지배력이 공공해졌다. 반면에 촉나라는 전략 요충지인 형주를 잃어 형주와 익주를 발판으로 중원을 치려는 제갈근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었다. 244년 그는 승상이 되었다. 그를 임명하는 조서에는 “천부적인 자질과 총명함이 있어 미덕을 빛냈으며, 장군으로 임명되어 나라를 보좌하고 재난 조인과의 싸움에 투입했다. 오의 조정은 태자 손동이 죽은 뒤 셋째 아들 손화와 넷째 아들 손패 지지 세력간의 싸움으로 시끄러웠다. 손권은 손화를 태자로 삼았지만 손패를 노왕으로 삼아 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는 태자와 노왕의 대우를 달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오히려 무고를 받고 파직되었다. 건강을 해쳐 63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진수는 삼국지 육손전에서 “육손은 천성스럽고 간절함이 지극하여 나랏일을 걱정하다 죽었으니 사직의 신하라고 할만하다”고 칭찬하였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상가건물 주택 나대지 임야 구함 062-714-2251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서구 화정동 청기와주유소 대지 995㎡ 건물 469㎡ 감평가 17억 최저가 17억
- ★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치과병원원 자동차정비공장 대지 3,062㎡ 건물1,229㎡ 감평가 31억7천 최저가 31억7천
- ★ 담양 무정면 봉안리 공장 대지 6,552㎡ 건물2,473㎡ 감평가 13억9천3백 최저가 7억8천만원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전역인근 5층속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평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건물 1495㎡ 감평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평가 12억1천6백 최저가 8억5천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함평 해보면 온산리 공장 대지 3,306㎡ 건물 1,977㎡ 감평가 26억1천1백 최저가 14억6천2백
-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동리 영암버스터미널 옆 1,948㎡ 일반상업지구 대로변 투자 최적화 감평가 8억8천6백 최저가 8억8천6백만원

수익형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백 원 18억 매매 48억
- ★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매매 18억원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델유형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률 보증금2억5천 원 1천4백 매매27억(용13억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억(용28억포함),수익성 월평균 8천만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 옆 매매13억5천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집합3개 매매6억3천 대출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백
- ★ 광주 지산동 조산대후문 원룸16개 투룸3개 수익율최상 내부 깨끗함 매매7억3천5백만원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 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 신축 4층건물 대지 239㎡ 건물 564㎡ 1층 점포3개 버스정류장 앞 주변 아파트 신축중 매매 14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원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하기취득)
- ★ 광주 산수동 대로변 병원건물 대지 596㎡ 건물 948㎡ 주택 86㎡포함 매매 12억5천만원

20년경력/부동산 매매,임대/전지역 신속 책임 중개/경,공매 NPL 컨설팅 010-6211-4585 조여사